

14년 만에 바뀐
수능1위 SKYEDU

SKYEDU는 2014년 12월 15일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SKYEDU는 2014년 12월 15일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SKYEDU는 2014년 12월 15일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SKYEDU는 2014년 12월 15일 설립된 교육기관입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해설 - I 국어

I 국어

• 국어 영역 A형 •

정답

1	③	2	①	3	②	4	④	5	⑤
6	②	7	③	8	⑤	9	②	10	③
11	④	12	①	13	③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④	19	②	20	①
21	①	22	④	23	⑤	24	⑤	25	④
26	②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⑤	32	④	33	①	34	②	35	①
36	⑤	37	④	38	②	39	⑤	40	③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대화에서 드러난 참여자들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③ 자신을 낮춰 겸손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장점을 부각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목적의 발화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물음의 형식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에 동조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② 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언어적 표현을 보완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은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표현을 최대화하는 '요령의 격률'에 충실한 표현이므로 적절하다. ⑤ 상대방의 발언을 다시 확인하는 공감적 듣기에 해당하므로 적절하다.

2. [출제의도] 대화의 과정을 분석하여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아 결론을 이끌어 가는 과정을 파악한다.

① [A] 에서 토요일 오전에 학생2가 학생1의 홍보 업무를 돕고, 주중에 연습하기를 원했던 학생1이 토요일 오후 연습을 수용함으로써 합의에 이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② [B] 에서는 연습 장소를 두고 무대와 연습실로 각자 의견을 제시한 후 학생1의 견해를 따라 연습실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A] 에서는 연습시간의 문제를, [B] 에서는 연습 장소의 문제를 결정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A] 와 [B] 모두 공연을 앞둔 두 사람

공동의 문제에 대해 대화하고 있다. ⑤ [A] 에서는 학생1이 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론을 내리고 있지만 [B] 에서는 학생2의 의견을 학생1이 따르고 있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3. [출제의도] 발표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전 계획의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문가의 평가는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적합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 단락 마지막 부분 '먼저, ~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두 번째 단락에서 서양의 주택과 전통 한옥의 처마 자료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④ 첫 단락 도입부에서 지난 여름의 전통 한옥 체험을 사례로 들고 있다. ⑤ 마지막 단락에서 발표 내용을 요약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4. [출제의도] 발표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듣기의 방법을 파악한다.

④ ④의 내용은 모두 사실에 대한 정보이므로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서 듣는다는 서술은 적합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흙과 나무가 물에 약해 벽과 기둥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므로 원인과 결과라는 정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며 듣는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② [A] 의 첫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타당한 진술이다. ③ 발표의 내용을 자신의 주거 형태와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이 모두 한반도의 자연환경을 고려한 것이므로 공통점을 비교하며 들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5. [출제의도] 발표의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확인한다.

⑤ 청자3은 시각자료 활용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용어의 설명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적절한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청자1은 처마가 한옥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점에 공감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여름철 한옥의 실내가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창호와 관련지어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견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③ 청자2는 발표 주제가 아닌 발표 태도를 문제 삼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청자2는 발표자가 청중의 반응을 살피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청중과의 상호작용을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진술을 적절하지 않다.

- 작문 -

6. [출제의도] 제시문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을 파악한다.

② 필자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를 이후 자신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갖는 의미를 파악하게 됐다는 점을 밝히

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개인적인 의미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정 개인의 주관에 바탕으로 부여한 의미를, 관습적인 의미는 대상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미를 말하므로 ㉠의 진술은 할아버지의 주관에 개입된 개인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은 필자가 그 의미를 깨달은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문제제기나 해결방안의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 ④ 할아버지의 발언을 정신적 가치를 증시하는 것과 관련 지을 수는 있으나, 물질적 가치를 증시한다는 진술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이성적으로 설명하거나 감성적으로 호소한다는 진술 역시 적절하지 않다.

7.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③ ㉢를 그대로 두는 것이 글의 흐름에 자연스럽다.

[오답풀이] ① 첫 문단은 과거 경험을 떠올리고 있고 둘째 문단에서는 최근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단락을 구분하는 것이 옳다. ② 할아버지의 미소가 떠올랐다는 앞문장과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다는 뒷 문장의 흐름으로 보아 전환의 '그런데' 보다는 인과적의미를 드러내는 '그래서'가 적절하다. ④ '사양'은 '겸손하여 응하지 않거나 받지 않음'의 의미로 쓰이므로 적절하다. ⑤ 본문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8. [출제의도] 보기에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내용이 초고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⑤ 본문에 세 번째 단락에 요리 프로그램이 갖는 부정적인 면을 언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직접 요리 프로그램에 심취할수록 직접 요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두 번째 단락 끝부분에 요리와 요리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이 언급되어 있다. ②③ 두 번째 단락 앞부분에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끄는 이유에서 설명하고 있다. ④ 세 번째 단락에 요리 프로그램이 갖는 부정적 요인으로 상업화 현상을 들고 있다.

9.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글을 적절하게 수정·보완한다.

② 작문 상황에서 글의 주제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 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글의 도입부에도 이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중매체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졌다'라는 내용은 위의 주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오답풀이] ① 요리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내용이 필요하므로 텔레비전 시청률에 대한 언급이 적절하므로 옳지 않다. ③ 주제가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므로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적합하지 않다. ④ '요리 프로그램의 구성방식'은 주제와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주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리 프로그램의 부정적 영향이므로 긍정적 영향으로 수정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작문상황을 바탕으로 제시문에 들어갈 내용을 추론한다.

③ 작문 상황에서 글의 주제를 '텔레비전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와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 라고 밝히고 있고, 조연2에서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A] 의 앞부분에서 요리 프로그램의 인기 이유를 요약하고 있으므로 [A] 에는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언급해야 한다.

[오답풀이] ① [A] 에는 부정적 영향을 언급해야 하는데, 소비자의 요구 수용과 공감 획득에 성공한 결과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초고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정적 효과는 상업화와 방송 다양성 훼손의 문제이므로 이를 모두 포괄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정보만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부정적 요인이 아닌 요리 프로그램 인기 요인을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요리 산업 확대에 인한 경제적 효과 역시 부정적 요인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 문법 -

11. [출제의도] 국어의 음운 변동 현상 이해한다.

㉡ 뽕+느라 → [뽕느라]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현상이다. 어간 '뽕'의 'ㅂ'이 어미 'ㄴ(비음)'의 영향으로 'ㄹ(비음)'으로 교체되었다.

[오답풀이] ① 들+고 → [듣꼬]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이다. 어간 '듣'의 'ㄷ'과 어미 '고'의 'ㄱ'이 만나 어미의 'ㄱ'이 된소리 'ㄱ'으로 교체되었다. 된소리되기 현상은 동화현상이 아니다.

② 놓+고 → [노코]로 발음되는 것은 축약(거센소리되기) 현상이다. 어간 '놓'의 'ㅎ'과 어미 '고'의 'ㄱ'이 만나 하나의 음운은 'ㅋ'으로 축약되었다. 축약 현상은 동화현상이 아니다.

③ 훑+네 → [훑레]로 발음되는 것은 동화현상 중 유음화 현상이다. 어간 '훑[훑]'의 'ㄹ'이 어미 '네'의 'ㄴ'에 영향을 주어 'ㄹ'로 교체되었다. 하지만 선지의 설명처럼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나는 'ㄹ'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⑤ 뉘+더라 → [닐떠라]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이다. 어간 '뉘[닐]'의 'ㄹ'이 어미 '더라'의 'ㄷ'에 영향을 주어 된소리 'ㄷ'으로 교체되었다. 된소리되기는 동화현상이 아니다.

12. [출제의도] 조사 종류와 기능을 이해한다.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의 '과'는 ㉠의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가 아니라 ㉠의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이다.

13. [출제의도] 어휘의 중심적·주변적 의미를 이해한다.

'뿌리'의 중심적 의미는 '식물의 밑동으로서 보통 땅속에 묻혀 있거나 다른 물체에 박혀 수분과 양분을 빨아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작용을 하는 기관'이며, 주변적 의미로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뜻이 있다. ③의 ㉠은 주변적 의미이고, ㉡은 중심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과 ㉡이 서로 바뀌었다.

14. [출제의도] 문장의 구성을 바르게 이해한다.

수정 전과 수정 후의 바뀐 점은 모두 세 가지이다. 먼저 '참여하려는'이 '참여한'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보기1>의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해당한다. '각 지역에'가 '각 지역의'로 바뀌었는데 이는 <보기1>의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답사함으로써'가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로 바뀌었는데 이는 <보기1>의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에 해당하며 생략된 필수 성분 '목적어'를 추가하였다.

15. [출제의도] 담화상황에 쓰이는 여러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아니,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에서 ‘저기’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로부터 멀리 있는 곳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가 아니라, ‘말을 꺼내기 거북할 때에 쓰는 감탄사’이다. 그러므로 ②의 설명은 옳지 않다.

- 독서 -

[16~18] 기술 제재 - 지문 인식 시스템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3단락의 1~4줄을 보면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에는 프리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② 1단락 4줄 - 정맥도 신원 확인의 중요한 생체 정보임. ③ 5단락 마지막 줄-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가 소형화에 더 유리함. ④ 3단락의 2~4줄과 마지막 줄 - 프리즘의 반사면에 습기나 기름이 있어야 얇은 막이 형성되고 그 부분의 빛의 세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땀이나 기름기가 적은 건성 지문인 경우 운전한 지문 영상을 획득하기 어렵다. ⑤ 5단락의 4~9 줄 -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는 접촉면과 지문의 융선 사이에 마찰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달라지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따라서 손가락을 이동시켜야 마찰열이 발생한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추론한다.

우선 2단락의 6~7줄을 보면 지문의 융선은 접촉이 되고 곧은 닿지 않는다고 제시되었다. 4단락 3~4줄을 보면, 판에 손가락이 닿은 부분(융선)은 센서의 전하량이 줄어든다고 하였으므로, 융선 부분의 전하량이 곧(닿지 않는 부분)의 전하량보다 적다.

[오답풀이]

	융선	곧	비고
접촉유무	지문 입력 장치의 접촉면과 닿음	지문 입력 장치의 접촉면과 닿지 않음	2단락 5~6줄
광학식 지문 입력 장치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어 약해짐	굴절, 산란되지 않고 반사되어 빛이 약해지지 않음 <추론>	3단락 5~7줄
정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접촉되어 전하량 감소	접촉되지 않으므로 전하량 감소되지 않음 <추론>	4단락 3~5줄
초전형 센서식 지문 입력 장치	접촉면 마찰열 발생→ 열이 발생하므로 온도 상승	접촉되지 않으므로 마찰열이 발생하지 않아 온도 상승 안됨 <추론>	5단락 5~7줄

18.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추론하고 구체적 상황에 적용한다.

6단락의 6~8줄을 보면, 특징 데이터 추출 단계는 각 지문이 가진 고유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하는 단계이고, <보기>를 보면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가 각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성질이므로 홍채의 불규칙한 무늬에서 특징 데이터를 추출해야 한다. 그러므로 ④번 선지에서처럼 동공의 비율을 고유 특징으로 추출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보기>를 보면 홍채는 각막과 수정체 사이에 있으므로 손가락 지문처럼 직접적으로 입력 장치와 접촉할 수 없다. 따라서 거기에 맞는 다른 방식에 따라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②③ 6단락 4~6줄에서 전처리 단계는 인식해야 할 핵심 부분이 더 잘 드러나도록 분리하고 보정하는 단계이

다. <보기>에서 보면 홍채의 핵심 정보는 불규칙한 무늬이고, 이 정보만을 분리해서(②번) 더 선명하게 보정하는(③번) 작업이 필요하다. ⑤ 6단락 마지막 줄에 보면, 유사도를 계산해서 기준치보다 큰지 아닌지를 따져서 동일인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따라서 정합 단계에서 유사도 판정을 위해서는 미리 기준치가 정해져야 한다.

[19~21] 과학 제재 - 원자를 이루는 물질들

19.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이 글은 원자의 내부를 이루는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발견과 성질에 대한 글이다. 각 입자들의 질량, 전기적 성질, 작용하는 힘 등을 설명하고는 있지만, 각 입자들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지는 않는다.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내부 구조가 아니라, 원자의 내부 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②번이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입자들의 질량 - 2단락 첫줄: 전자는 세 입자 중에 가장 작고 가볍다/ 3단락 첫줄: 양성자는 전자보다 대략 2000배 정도 무겁다/ 4단락 9줄: 중성자는 질량이 양성자와 비슷하다. ③ 전기적 성질- 2단락 2줄 :전자는 음전기/ 3단락 첫줄: 양성자는 양전기 / 4단락 8줄: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음 ④ 발견 순서- 2단락 3줄: 1897년 전자 발견 /3단락 11 줄: 원자핵 발견/ 4단락6~7줄: 1919년 양성자 확인 / 4단락 9~10줄: 1932년 중성자 발견/1935년 중간자 가설 ⑤ 작용하는 힘- 2단락 3~4줄: 전자끼리는 서로 반발력이 있음/ 3단락 마지막: 양전기를 띤 원자핵도 전자를 잡아당김./4단락 11~12줄: 중간자라는 입자를 통해 핵력이 작용하게 하여 양성자를 잡아당김. 4단락 13~15줄: 양성자들의 반발력보다 더 큰 힘으로 잡아당김.

20.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3단락을 보면 1898년 라듐의 발견 이후 1911년 러더퍼드는 라듐에서 방출되는 알파입자를 이용해 실험을 했고, 그 결과 원자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정답은 ①번이다.

[오답풀이] ② 4단락 6~7줄: 질소 충돌 실험을 통해 양성자를 확인했지만, 그것이 유카와 히데키의 가설을 입증하지는 않았다. 지문에는 유카와 히데키가 중간자 가설을 제안한 것까지는 제시되었고, 그 입증 과정은 설명되지 않았다. ③ 4단락 10~끝: 양성자가 핵 안에서 흩어지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가설을 제안한 것은 유카와 히데키이다. 채드윅은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이다. ④ 2단락+3단락: 19세기 말(1897년) 톰슨은 전자를 발견하고 ‘건포도빵 모형’을 제시했다. 그 이후 1911년(20세기 초) 러더퍼드가 ‘건포도빵 모형’을 수정하고 ‘태양계 모형’을 제안하였다. ⑤ 3단락 7~11줄: 러더퍼드는 알파 입자 실험을 통해 양전기가 원자 전체에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좁은 구역에만 모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21.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한다.

①의 의미-형용사. 여럿이 다 높낮이, 크기, 양 따위의 차이가 없이 한결같다. 그러므로 ①번이 정답이다.

[오답풀이]

- ② 동사- 여럿 중에서 가려내거나 뽑다.
- ③ 동사- 붓이나 악기의 줄 따위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다듬거나 손질한다.
- ④ 동사-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게 하거나 들쭉날쭉한 것을 손질한다.

⑤ 형용사- 상태가 정상적으로 순조롭다.

[22~26] 인문 제재 -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

22. [출제의도] 각 단락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라) 단락에서는 도덕 실재론의 장점이 아니라 정서주의의 장점과 의의(도덕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자연스럽게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음)를 도덕적 실재론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23.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다) 단락의 마지막을 보면 승인 감정에 의해 '옴'의 태도를 표현하는 것은 도덕 실재론이 아니라 정서주의의 견해이므로 정답은 ⑤번이다.

[오답풀이]

- ① (가) 단락 4~5줄에서 알 수 있다.
- ② (라) 단락 6~7줄에서 알 수 있다.
- ③ (다) 단락 4~6줄에서 알 수 있다.
- ④ (가) 단락 마지막 줄에서 알 수 있다.

24. [출제의도] 문장의 의미를 파악한다.

(마) 단락의 내용은 정서주의의 문제점에 대한 제기다. 글쓴이는 ㉠에서 감정은 이유 없이 바뀔 수 있는데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고 했다. 그 말은 곧 감정과는 다르게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25. [출제의도] 유사한 상황에서의 적용 및 사실적 정보를 이해한다.

(나) 단락 5~7줄을 보면 B(도덕 실재론)는 참 또는 거짓으로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예술적 판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해서 (ㄱ)과 (ㄴ) 중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명제라고 판단할 것이다.

[오답풀이] ① (다) 단락 6줄-정서주의는 도덕적 진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마찬가지로 예술적 진리도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나) 단락 마지막 줄/(다) 단락 2~3줄- 객관적 실재를 주장하는 쪽은 A가 아니라 도덕 실재론자인 B임 ③ (다) 단락 3~4줄- 정서주의인 A는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⑤ (라) 단락의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정서주의(A)에서는 사람들 간의 판단 차이를 '틀림'이 아니라 '다름'으로 보기 때문에 극단적 대립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ㄱ)(ㄴ)처럼 대립되는 의견을 모두 나름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B(도덕적 실재론자)가 아니라 A(정서론자)의 의견이다.

26. [출제의도] 단어의 의미를 파악한다.

①의 '규정'은 '내용이나 성격, 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이란 뜻이다. ②번에 설명되어 있는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이란 단어는 '규제'임

[27~30] 사회 제재 - 불법 행위의 금전적 제재 수단

2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④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도입 사례, 문제점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단락 ② 3단락, 4단락 ③ 2단락 ⑤ 3단락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이해한다.

⑤ 3단락 앞부분. 우리나라에서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이 제기되거나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드물어, 과징금과 같은 행정적 제재 수단이 억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단락. 과징금은 행정적 수단으로, 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2단락에 제시된 예시에서 기업들의 담합 행위는 불법 행위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단락. 민사적 수단인 손해 배상은 피해자의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단락. 하나의 불법 행위에 대해 세 가지 금전적 제재가 내려질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9. [출제의도] 지시 대상의 의미를 파악한다.

㉠ '벌금과 비슷한 성격'에서 '벌금'은 2단락에서 형사적 수단으로서 가해자의 징벌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행정적 제재 수단은 과징금이라 했으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3단락.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금전적 제재 수단은 손해 배상이라 했으므로, 손해 배상금을 피해자가 받는 것은 금전적 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적절한 설명이다. ⑤ 4단락.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불법 행위의 피해자가 손해액에 해당하는 배상금과 가해자에 대한 징벌 성격이 가미된 배상금을 더하여 배상받는다 고 했다. 여기서 가미된 배상금이 황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다. (*황제 : 뜻밖에 재물을 얻음)

30.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를 통해 논지 이해를 확인한다.

<보기>는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의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 4단락에 따르면 모든 배상금을 피해자가 배상받는다고 했으므로, ①의 배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하도급 : 수급인이 맡은 일의 전부나 일부를 제삼자가 독립하여 맡아 완성하는 것)

[오답풀이] ②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는 경제적 이익 추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제재 수단의 하나이므로 적절하다. ④ 일반적 손해 배상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상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으나, <보기>의 피해자는 손해의 3배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⑤ 3단락 후반부. 적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불법 행위의 경우에는 억제력을 높이면서도 손해 배상을 더욱 충실히 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 배상 제도'를 요구한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설명이다.

- 문학 -

[31~33] (교전시가) (가) 남구만, 「동창이 밝았느냐」

농촌의 아침 정경을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한 후,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농촌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을 소재로 하여 그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리면서 생활 감정을 표현했다.

(교전시가) (나) 위백규, 「농가」

전 9장으로 이루어진 연시조로서 전형적인 농촌 생활을 일과 의 진행 시간 순서에 따라 노래한 작품으로, 현실 비판적이고 부패한 시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밝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교전시가〉 (다) 정학유, 「농가월평가」

농촌 생활의 1년을 각 월별로 읊은 달거리 형식의 노래로, 서장(序章)을 포함하여 모두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사에서는 천체운동과 계절의 반복 변화를, 본사에서는 농법·농가행사·농가풍속 등을 적어 농민을 교화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결사에서는 본사의 내용대로 행해야 한다며 실천과 경계의 뜻을 펼치고 있다.

31.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⑤ (가)는 초장의 '노고지리 우지진다'에, (나)는 <4수>의 '휘파람 홀리 불 제'에, (다)는 '뺨꼭새 자주 울고~피꼬리 노래한다'에 각각 청각적 심상이 드러난다.
[오답풀이] ② 생성의 이미지는 (다)의 '떡갈잎 퍼질 때', '보리 이삭 패어 나니'와, 소멸의 이미지는(나)의 '둘러내자'와 연결할 수 있다. ③ 화자의 심경 변화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반어적 표현은 활용되지 않았다.

32. [출제의도]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

④ 해당 표현은 괴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하기에 좋은 절기임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오답풀이] ① '동창'은 '동쪽으로 난 창'을 뜻하는 것으로 '동창'이 밝아오는 것은 해가 뜨는 아침이 왔음을 의미한다. 이를 아침부터 부지런히 지키려는 노고지리(종달새)와 함께 제시해 시적 화자인 아이에게 일어나야 할 때임을 알리고 있다. ⑤ ㉠의 바로 앞 '남녀노소 몰두하니 집에 있을 틈이 없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3.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① 특정 시기에 재배해야 하는 작물이 제시된 작품은 (다)로 '입하 소만'절기에 재배하는 목화, 수수, 동부, 녹두, 참깨 등이 제시 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나)의 <4수>'청풍에 ~ 홀리 불 제'에 농사일 중에 휴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이 나타나 있다. ③ (다)에 먹는 것(보리, 수수 등)과 입는 것(목화)에 관련된 농사일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④ (나)와 (다)는 모두 노동의 현장을 다루고 있다. ⑤ (나)의 '우거진 고랑'이나 (다)의 '물 댄 논' 등은 모두 농부들이 농사에 힘쓰는 일상적인 공간이다.

〔34~37〕 (현대소설) 김유정, 「봄 봄」

작품의 서술자이면서 주인공인 '나'는 3년을 훨씬 넘도록 봉필이라는 마름의 딸 점순이와 혼인하기 위하여 돈 한 푼 안 받고 데릴사위로서 약정된 머슴노릇을 한다. '나'는 어서 빨리 점순이와 혼인을 하고 싶으나, 그럼으로써 노동력이 손실될까 우려하는 봉필의 욕심(순진한 인물의 노동력을 교묘하게 착취하는 간교한 인물) 때문에 그 소망은 번번이 좌절된다. 봉필의 상투적인 이유는 점순이가 채 자라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주인공인 '나'는 우직하고 바보스러운 인물이지만 이 작품은 그러한 인간의 우행(愚行)을 연민이나 타애적(他愛的) 감정으로 용인하려는 해학의 따뜻함을 지니고 있다. 또한 서술에 있어 속어적인 어조가 토착적인 정감과 전래의 바보사위 이야기와 같은 인간의 바보스러운 순진성에 대한 연민의 해학미를 더욱 유발시킨다.

34.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작년 이 맘때', <중략> 이후 '그 전날', '이날'이라는 시간 표현을 통해 과거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과거 사건을 통해 '나'와 '장인(봉필)'의 결끄러운 관계라든가, 점순이의 키가 크지 않아 내가 화가 난 부분이라든가, 점순이가 나에게 빨리 성례시켜달라고 다그치는 장면 등을 나타낸다. 이를 통해 나와 점순이는 빨리 결혼하고 싶어하지만, 장인인 봉필은 점순의 키가 충분히 크지 않았다고 핑곗거리를 만들어 결혼을 미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②의 과거 사건을 현재 상황에 끌어 들여 인물들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과거 사건과 현재 나의 내면이 서술되고 있으므로, 두 개의 사건이 병치되는 '병렬적 구성'은 아니다. 또한 긴장감이 조성되어 있지도 않다. ③ 현학적 표현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순진한 '나'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일상 언어적 표현과 방언의 사용, 구어적 문체 등이 사용되었다. 현학적 표현이란 '지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문장을 복잡하고 어렵게 쓴다든가,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말한다. ④ 각종 인물인 '나'의 내면과 '나'의 눈에 비친 '장인(봉필)'과 '점순'의 행동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서술자인 '나'의 시선에 비친 '인물들'의 행동이 주관적 입장에서 관찰되고 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묘사는 아니다. ⑤ 서술자 '나'가 겪은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이 주로 서술되어 있으므로 '나'의 체험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 다른 사람의 체험을 듣고 서술한 것이 아니다. 또한 현재와 과거가 섞여 있는 역순행적 구성으로 볼 수 있지만 액자식 구성은 아니다. 액자식 구성이란 외부 이야기 안에 내부 이야기가 들어 있는 형태의 구성법이다. 역순행적 구성과 액자식 구성은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므로 반드시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기 바란다.

35. [출제의도] 등장 인물의 특성을 이해한다.

지문의 뒷부분 '㉠이날' 부분에서 점순이는 나에게 '밤낮 일만 할'거나며 불만을 표시한 후, '성례시켜' 달라고 나에게 요구한다. 이를 통해 점순이는 '그럼 어떡하냐'는 나의 말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풀이] ② 내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한 것은 2단락 부분에 나타난다. 그러나 그 이유는 '장인'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기 때문에 고통을 먹이려는 것이지, 점순이와의 갈등을 피하기 위함은 아니다. 물론 점순이와 나의 갈등이 제시된 것도 아니다. ③ 나와 장인 사이의 갈등은 '점순이와 결혼'을 빨리 시켜주지 않아서이다. 점순이에게 일을 많이 시켜서가 아니다. 일은 오히려 나에게 많이 시키고 있다. ④ 동네 사람들이 장인을 밋게 보는 이유는 마름에다가 욕까지 잘해서이지, 나와 점순이의 결혼을 미뤄서가 아니다. 마름이란 일제강점기에 지주와 소작인의 중간에서 소작인들을 관리하던 역할을 맡았던 계층이다. 이들은 매년 가을이 되면 다음해 농사에 대해 지주를 대신하여 권리를 행사하였다. 소작인들은 다음해 소작을 계속 하기 위해서 지주보다도 중간계층인 마름들에게 잘 보여야만 하였다. 1문단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일단이 드러난다. ⑤ 장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동네 사람들과 유사하다. 1문단에서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라는 서술에서 장인을 '이 놈'이라 호칭한 부분, <중략> 아랫부분에서 '㉡ 장인님의 소니까'라고 말하며 밋을 같고 있는 소를 때리는 장면 등을 통해 나 역시 장인을 부정

적으로 보고 있다.

36.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이해한다.

㉔의 표현은 점순이의 키가 자랐다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자란 것 같다는 말이다. 즉 정신적으로 성숙해진(어른이 된) 것 같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점순이가 자란 것은 사실도 아니며, 그것을 장인이 숨겼다는 것 또한 잘못된 해석이다. 단지, 내가 느끼기에 점순이가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 웬지 점순이가 어른이 된 것 같아 반갑다는 말일 뿐이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장인의 이름은 봉필이다. 그런데 욕을 잘하기 때문에 '봉필'이라는 이름 첫글자에 '욕'을 넣어 '욕필'이라 불린다. ② 괄호를 제거하고 읽어도 전혀 무리가 없는 표현이다. 왜냐하면 서술자 '나'의 내면 심리를 보충하여 또는 자세하게 서술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③ 괄호 앞부분에서 '이 망할 놈의 소'는 '장인님의 소'이다. 곧 '장인님=망할 놈'이라 할 수 있으므로 '장인과 소'는 동일시의 대상이고, 장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망할 놈'이므로 장인에 대한 나의 반감(反感)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반감이란 '반대하거나 반항하는 감정'을 말한다. ④ 점순이에 대한 장인의 평가는 '채신이 없다', '들까불다'는 것이다. '채신없다'는 말은 '말이나 행동이 경솔하여 위엄이 없다'는 뜻이고, '들까불다'는 '위 아래로 심하게 흔들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경솔하여 행동이 가볍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점순이의 몸이 너무 빨리빨리 논다는 나의 평가에 장인의 평가가 첨가된 것이다.

37. [출제의도]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㉔의 '밭'에서 '나는 울화를 소에게 터뜨리고 있다. 소를 '이 망할 자식의 소'라고 하며 때리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울화가 난 이유는 '점순의 키가 자라지 않지' 때문이다. 그리고 점순에게 울화를 터뜨린 것도 아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1문단의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문장에서 소작농들의 불안감을 추리할 수 있다. '땅이 떨어지다'는 말은 '소작하던 땅을 다음 해에는 경작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② 장인이 나에게 가을에 결혼시켜 주겠다는 말을 믿고, 귀가 번쩍 띄어 남들이 이들에 할 일을 하루 만에 다 해치웠다. 그러므로 장인의 회유(懷柔)에 넘어간 '나'가 일꾼의 모습을 보였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회유'는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은 듣도록 한다'는 뜻이다. ③ 화전발을 갈던 나는 '야릇한 꽃내가 물컹물컹 코를 찌르고(후각적) 머리 위에서 벌들은 가끔 붕, 붕 소리를 친다.(청각적) 바위 틈에서 샘물 소리밖에는 안 들리는 산골짜기니까 맑은 하늘의 봄별(촉각적)은 이불 속같이 따스하고 꼭 꿈꾸는 것' 같아 가슴이 울렁울렁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⑤ 이 날은 화전발을 갈던 날 점심 때, 점심을 가져 온 점순이 나에게 투덜거린 날이다. 점순은 나에게 '밤낮 일만 할 거냐고, 성례시켜 달라고 아버지한테 조르지도 못하느냐'는 뜻으로 편잔을 한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정신적으로 성숙해진 듯한 점순에 대해, 나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점순의 마음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38~40] (고전소설) 작자 미상, '홍계월전'

이 작품은 남장을 한 주인공인 홍계월의 고행과 무용담을 그린 여성 영웅 소설이자 군담 소설이다. 남장을 한 여성 주인공의 신분이 밝혀진 후에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여성영웅 소설의 일반적인 줄거리인데, 이 작품은 여성성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며 오히려 남성을 압도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인다.

38. [출제의도] 구체적 장면의 내용을 이해한다.

[A]는 천자와 어의 사이의 대화를 통해, [B]는 남관장이 천자에게 보낸 장계(狀啓) 즉 문서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B]는 오왕과 초왕이 명나라에 반하여 전쟁을 일으키고 명나라의 도성인 장안으로 오고 있다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소설의 서술 특징을 묻는 문제는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므로 개념 학습을 반드시 해 두기 바란다. '묘사, 요약적 진술, 내면 심리 위주의 서술, 의식의 흐름, 내적 독백' 등 구체적 서술 방식의 특징을 학습해 두기를!!! 정답 ②

[오답풀이] ① [A]에서 전달하는 주체는 '어의'이고, [B]에서 사건을 전달하는 주체는 '남관장'이다. 서술자는 '어의'와 '남관장' 모두에 대해 객관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③ [A]에는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고, [B]에는 과장된 표현이 없다. 오히려 군사적 수를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한 장면을 극대화한 부분도 없다. 사건의 개요를 요약했을 뿐이다. '장면의 극대화'란 '어떤 하나의 장면을 세밀하게 묘사하여 서사의 흐름보다는 장면을 현장감 있게 제시하는' 서술 방식을 말한다. 소설에서 중요한 개념이다. 반드시 학습해야 하겠다. ④ [A], [B] 모두 여러 가지 사건이 동시에 발생한 부분은 없다. 이러한 구성 방식을 '병렬적 구성'이라 한다. 소설 개념에서 또한 중요한 부분이다. 반드시 학습하자. 한편 긴박한 분위기는 [B]에 드러나지만 [A]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긴박한 분위기'란 소설에서 '인물 간의 위기 상황이 고조되거나, 사건 전개상 등장 인물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상황'이 제시될 경우에 해당한다. 이 역시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개념이므로 유의하기 바란다. ⑤ [A]에서 천자는 어의에게 평국에 대한 의심을 바로 확인하지 말고 '아직은 누설하지 말라'며 상화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반면 [B]에는 '오왕과 초왕이 명나라의 수도 장안을 향해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이동'하므로 빨리 병마를 보내 전쟁에 임해야 한다고 상소하고 있으므로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A]와 [B]에 대한 설명이 뒤바뀌어 진술되어 있다. 이런 유형의 답지, 수능에서 자주 보인다. 답지가 서술되는 형식에 대해 공부하는 것도 고득점을 향한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39.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평국의 정체가 여자임이 드러난 이후 집안에 머무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집안일을 하며 바쁘게 보낸 것은 아니다. 오히려 높은 신분으로 덕분에 집안일에 매달리지 않고 '매일 시비를 데리고 장기와 바둑으로 소일(消日)'하고 있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안일에 매달려 있는 홍계월을 상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문에서 ㉔부분 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㉔에서 평국(홍계월)과 보국이 여공에게 '먼 길을 온 것에 대해 치하했다'고 진술했다. 이를 통해 여공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다. ② 평국(홍계월)이 병이 들자 '집안이 경동(驚動)-놀라서 움직임'하여 주야(晝夜-밤낮으로)를 약으로 치료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홍계월이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자 벼슬을 버리고 집안에서 여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할 일을 생각하자니 서러워 부모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있다. 적절하다. ④ 천자는 남관장의 장계를 받아보고 고민하던 중, 우승상 명연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한다. "평국이 전일(前日)에는 출세하였기에 불려서 국사(國事-나라일)를 의논하였지만, 지금은 규중(閨中)의 여

자라 명령으로 불러들여 전장(戰場-전쟁터)에 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보자면 천자는 내심(內心)으로는 평국을 부르고 싶지만 지금 여자의 몸으로 규중에 있으니 부르기가 난처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자가 평국을 부르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40. [출제의도]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홍계월이 궁궐을 짓고 천자에 못지않은 생활을 한 것은 지문에 드러나지만 그로인해 천자의 노여움을 샀다는 것은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2차 위기의 빌미가 되었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풀이] ① 지문에서 ㉔ 다음 문장을 보면, ‘신하들이 아뢰기를, 평국이 지금 규중에 처하나 이름이 조야(朝野-조정과 민간)에 알렸고(홍계월의 명성이 나라에 알려져 있음) 또한 작록(爵祿-벼슬)이 영구(永久)하오니(한 번 한 벼슬이 영원함) 어찌 혐의(嫌疑-거리고 싫어함)하오리오.’라며 신하들이 천자에게 홍계월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홍계월의 능력이 뛰어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② 지문의 ㉔ 앞 문장에서 평국의 생각이 드러난 문장을 찾아보면, ‘어이가 나의 맥을 보았으니 필시 본색이 탄로날지라 이제는 할 일 없이 되었으니, 여복(女服)을 갈아입고 규중에 몸을 숨어 세월을 보내려’ 한다. 이를 통해 보자면 여자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참여가 제한됨을 알 수 있다. ④ 지문의 ㉑ 앞 문장을 보면, 위공과 정렬 부인이 여공에게 감사하며 하는 말. “어지신 덕택으로 계월을 구하시라 천자식같이 길러 입신양명하게 하시니 은혜가 백골난망(白骨難忘)이로소이다.”라고 했다. 이를 통해 볼 때, 홍계월이 1차 위기(어린 시절의 위기)에서 여공이 조력자임을 알 수 있으며, 여공 덕분에 위기를 극복했음을 추론할 수 있다. ⑤ 지문의 ㉒ 부분에서 천자가 홍계월에게 하는 말을 보자. “지금 오초 양국이 반하여 호주 북지를 항복받고 남관을 넘어 황성을 범하고자 한다 하니 경은 마땅히 출사하여 사직을 안보(安保)하게 하라.”며 홍계월이 전쟁에 출전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천자는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려 하며, 홍계월은 규중에 갇혀 여자로서의 삶을 벗어나 사회적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결국 홍계월의 입장에서 보자면 국가적 위기 극복과 개인적 위기 극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극복해야만 하므로 적절하다.

[41~43] (현대시) (가) 고은, 「성묘」

분단에 대한 참담한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통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노래한 작품이다. 화자는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전국을 돌며 소금을 팔던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남북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현대시) (나)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안 뒷마루」

외할머니 집 뒤안 뒷 마루를 매개로 하여 외할머니와의 유년시절 추억을 노래한 시로 ‘뒷 마루’라는 특정 공간을 통해 외할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41. [출제의도]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④ (가)는 ‘선지’, ‘붉은 물빛’, ‘하얀 소금’ 등으로 (나)는 ‘떡 오뒷빛 뒷마루’, ‘오디 열매’ 등으로 색감을 드러내며 시적 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나) 모두 유사한 시구의 점층적 변주는

확인되지 않는다. (가)는 통사구조와 종결어미 등의 반복을 통해 (나)는 ‘~히다’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에서 ‘남북 분단’이라는 부정적 현실을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염원을 드러낸다.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한 것은 (나)이다. ⑤ (가),(나) 모두 역설적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으며 모순적 상황에 대한 반성적 자세도 나타나지 않는다.

42. [출제의도] <보기>를 통해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⑤ ㉔의 ‘이 땅’은 미래의 공간으로 ‘남북통일’ 실현을 가정한 희망적 공간이다.

[오답풀이] ① ㉑의 ‘이 땅’은 아버지가 살아 온 과거의 공간이며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감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칼날’이나 ‘붉은 물빛’은 일제에 의해 억압당하고 훼손된 민족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③ ㉔의 ‘이 땅’은 화자가 살아가는 현재의 공간이다.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 던 것과 연결되므로 ㉔은 ‘남북 분단’으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재를 나타내는 공간이다. ④ 화자가 소망하는 것은 아버지의 가업을 이으려는 것이 아니라 남북통일이다.

43.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파악한다.

① ‘집 뒤안’은 단절의 공간이 아니라 어린 시절 화자를 보살피 주던 외할머니를 회상하게 하는 공간이다.

[오답풀이] ② ‘거울’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손때가 묻어있는 오래된 뒷마루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소재이다. ③ 7행 이후에 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뒷마루’를 찾아 외할머니에게 위로를 받던 화자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⑤ 어머니의 꾸지람을 막아주는 외할머니의 얼굴과 나의 얼굴이 ‘나란히’ 있는 모습에서 확인할 수 있다.

[44~45] (현대희곡) 이강백, 「결혼」

1974년에 발표한 단막극의 희곡으로, 전통적인 기법에서 벗어나 실험적으로 구성된 작품이다. 특별한 무대 장치도 없고 필요한 소품을 관객으로부터 빌려 오는가 하면, 극 중 시간과 상연 시간을 일치시키는 등의 기법이 활용되었다. 이러한 극적 전략을 통해 공연에서 관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이야기책 속의 사건을 낭독하는 방식으로 관객에게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한된 시간 안에 빌린 물건을 돌려주어야 하는 처지에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하는 남자의 삶을 풀어 나가고 있다. 작품의 바탕에는 ‘결혼’이라는 소재를 통해 이 세상에서 처음부터 자신에게 소유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은 누군가에게 빌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주제 의식이 깔려 있다.

44. [출제의도] 특정 부분을 통해 작품 내용을 이해한다.

[A]에서 남자는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으로부터 빌린 것을 소유할 뿐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사용한 후 돌려주어야 한다며 여자를 설득하고 있다. 그러나 ㉔에서 여자의 행동은 그런 남자의 말을 무시한 채 남자를 떠나고 있다. 이는 ‘남자의 얼굴을 외면한 채 걸어 나간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의 말을 거짓이라 생각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③

• 국어 영역 B형 •

정답

1	①	2	⑤	3	④	4	③	5	①
6	③	7	⑤	8	③	9	②	10	③
11	⑤	12	①	13	⑤	14	④	15	②
16	①	17	②	18	②	19	③	20	④
21	③	22	②	23	③	24	①	25	⑤
26	④	27	④	28	⑤	29	④	30	①
31	③	32	④	33	②	34	⑤	35	④
36	④	37	②	38	⑤	39	④	40	⑤
41	④	42	⑤	43	①	44	③	45	⑤

해설

- 화법 -

1. [출제의도] 토론 중에 드러난 발화의 의도를 파악한다.

① ㉠에서 찬성 1은 앞에서 팬덤 활동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발언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물음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답풀이] ② 실제 사례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사용한 용어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도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함일 뿐 상대의 견해를 인정하거나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발화이므로 상대의 답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2. 출제의도] 토론의 흐름과 보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반대신문의 내용을 추론한다.

⑤ <보기>에서 반대2는 자료의 출처와 공정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찬성측이 제시한 조사자료의 출처가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으로 언급되어 있으므로 [A]에서는 자료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출처는 국내 유명 팬덤인 햇살 팬클럽으로 언급되어 있다. ② 자료의 내용이 찬성 측 논거의 보완하는 것이므로 반대 측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다. ③ 본문에서 찬성1이 최근의 조사임을 밝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기에서 반대 측이 제기하려는 주된 문제가 자료의 출처와 공정성에 관한 것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주제가 '청소년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이므로 청소년들의 팬덤 활동의 만족도를 조사할 때 그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3. [출제의도] 토론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본문의 반대1은 이모 팬덤과 삼촌 팬덤이 연하의 스타에게 열광하는 현상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소년 팬덤 활동은 청소년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 라는 논제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 앞부분의 남자의 대사를 보면 남자가 빌린 물건들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그 시간이 되면 하인이 나타나 빌린 물건들을 회수해 간다는 규칙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 하인이 책을 빼앗아가는 행위는 정해진 시간이 되면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② 하인이 보여 준 회중시계는 시간을 의미하며 인간은 그 시간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인이 지정한 회중시계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도 영원히 물건을 소유할 수 없다는 의미를 추리할 수 있다. ④ 벵타이를 빌렸던 남성 관객을 청자로 하여 "여기 중인이 있습니다. 이 중인 앞에서 약속하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덤 당신을 빌리는 동안에, 아끼고, 사랑하고, 그랬다가 언젠가 끝나는 그 시간이 되면 공손하게 되돌려 줄" 거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관객을 중인삼아 여자를 아끼고 사랑하겠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⑤ 하인의 구두발에 걸어차이는 남자를 부축해 일으키며 포옹하는 여자의 행동은 남자를 의면하지 않고 남자에 대해 연민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45. [출제의도] <보기>를 통해 작품 내용을 이해한다.

남자와 하인, 둘 만이 있던 무대에 여자가 등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여자의 등장으로 인해 남자와 하인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남자와 하인 사이의 갈등은 물건을 빌린 규칙에 의해 조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될 갈등인 것이지, 여자에 의해 해소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남자의 첫 번째 대사를 보면, 젊은 사기꾼이 집과 모자, 벵타이, 의복, 하인 등을 빌려 여자에게 전보를 쳐서 맞선을 보자고 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시계를 보며 여자가 왜 오지 않느냐고 혼잣말을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무대에서 남자가 실제로 전보를 치는 장면이 제시될 필요는 없다. 남자의 대사를 통해 전보를 쳤다는 사건이 과거의 사건임을 제시하면 충분하다. ② 하인이 등장하여 물건을 회수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는 의미이며, 45분간의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결혼을 해야만 하는 남자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하인이 계속 등장하여 물건을 회수하는 상황은 여자에게 결혼 승낙을 받지 못한 남자에게 초조함을 불러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③ 하인이 무대에서 물건을 회수하여 사라진 다음, 무대에 다시 나타났을 때 하인의 손에 회수했던 물건이 없다. 이는 <보기>의 설명처럼 '무대 위에서 보여 주지 않아도 되는 사건은 무대 밖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처리한다'는 진술에 적절하다. ④ 남자의 대사 ㉠을 보면 '벵타이를 빌렸었던 남성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다. <보기>에서 '현대극에서는 무대 공간과 관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관객석까지 무대 공간으로' 확장하는 특성을 보여준다는 설명에 적합하다. 이런 방식의 극적 요소를 '실험적 기법'이라 하며 무대가 관객과 연결되어 소통이 가능하므로 '개방적 구성'이라고도 한다. 이와 달리 '짜여진 대본'대로 극이 진행될 때 '폐쇄적 구성'이라 한다.

[오답풀이] ①②③ 본문에서 찬성1과 반대1이 각각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밝히고 있는 내용이므로 적절하다. ⑤ 본문에서 찬성1은 반대 신문에서 중독이란 단어의 의미를 묻고 이를 모든 청소년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4. -

5. 4~5. A형 1~2번 동일

- 작문 -

6. [출제의도] 초고에 글쓰기 계획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③ 초고의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문장에 국제 규범을 담은 홍보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으나 국제 규범의 제정에 참여하는 내용은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단락을 조선 덕종어보의 반환소식으로 시작하고 있다. ② 세 번째 단락에서 문화재 환수가 어려운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④ 네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다. ⑤ 마지막 단락에서 문화재 환수에 대한 관심과 이로 인한 기대효과를 언급하며 글을 마무리 하고 있다.

7.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적절한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⑤ (나)는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에 대한 자료이고 ① 역시 이 자료를 언급하고 있는데, 자료 (나)는 국외 문화재 파악 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수 현황은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므로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게 표현한 ⑤가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②③(나)의 핵심은 국외 문화재 파악 및 환수 현황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보기의 자료에서 국외에 남아 있는 문화재의 소재 파악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조건에 따라 글을 적절하게 수정·보완한다.

③ <보기>에서는 문화재 회수는 물론 보관과 관리에도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문화재 환수를 반대하고 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한 근거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금전적인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문화재 환수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는 ③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다)에서는 문화재 환수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①과 같이 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부각하면 <보기>의 입장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② 국외 문화재를 통해 우리나라를 해외에 알리는 것과 <보기>의 비용 문제와는 관련이 없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적은 비용으로 문화재 환수에 성공한 사례와 국외 문화재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다는 내용 사이에는 논리적인 관련성이 없다. ⑤ <보기>에서 제기하는 비용의 문제점을 설득하기에 공공기관의 정책추진이라는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

9. -

10. A형 6~7번 동일

- 문법 -

11. [출제의도] 표준발음법 중 ‘된소리되기’ 현상을 올바르게 이해한다.

‘(물건을) 얹지만’은 <보기> 중 ㉠에, ‘(자리에) 앉을수록’은 <보기> 중 ㉡에 따른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슴에) 품을 적에’는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머느리로) 삼고’는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② ‘(방이) 넓거든’은 어간 받침 ‘ㄹ, ㅂ’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두께가) 얇을지라도’는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③ ‘(신을) 신겠네요’는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땅을) 밟지도’는 어간 받침 ‘ㄹ, ㅂ’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남들이) 비웃을지 언정’은 관형사형 ‘-(으)르’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르’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고, ‘(먼지를) 훑던’은 어간 받침 ‘ㄹ, ㅂ’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는 ㉡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12. [출제의도] 준말의 표기를 올바르게 이해한다.

<보기>에서 ‘되+어요’의 올바른 준말을 ‘돼요’라고 설명했고, ‘되요’는 잘못된 표기라고 설명했다. 그러므로 ‘썰어라’는 ‘썰+어라’이므로 ‘썰라’가 바른 맞춤법이고, ‘썰라’는 올바른 지 않은 맞춤법이다.

13. [출제의도] 사전의 올바른 활용을 이해한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다 ㉠’의 ㉠에 해당하므로 주어 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는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의 의미이고, ‘엷이 녹다’의 ‘녹다’는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의 의미이므로 반의 관계이다.

14. A형 14번 참조

15. A형 15번 참조

16. [출제의도] 중세 국어의 표기 방식을 이해한다.

㉠ (나라+을)은 <보기1>의 설명 중 첫 번째에 해당하므로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그러므로 ‘나라할’의 표기가 옳다. ㉡ (깊+ㅅ)은 <보기1>의 설명 중 세 번째에 해당하므로 ‘ㅎ’은 나타나지 않고, 관형격 조사 ‘ㅅ’은 받침으로 적은 ‘깊’이 옳다. ㉢ (얇+과)는 <보기1>의 설명 두 번째에 해당하므로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안과’가 옳다.

- 독서 -

[17~20] 인문 제재 - 장자의 몰아일체

17. [출제의도] 글의 중심화제를 파악한다.

장자의 호접몽 이야기에 담긴 몰아일체의 의미를 『장자』에

나오는 '나를 잇는다'는 두 일화를 통해 풀어주고 있다. ②는 적절하다.

[오답풀이] ③ 정신과 육체의 조화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④ 자아와 세계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위해서는 정적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정적 상태의 극복은 적절하지 않다. ⑤ 마음의 두 가지 상태, 즉 '참된 자아를 잇는 것'과 '편협한 자아를 잇는 것'은 상보적 관계가 아니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5단락에서 '내가 편견 없는 눈의 감각으로 그 꽃으로 인해 나의 존재가 성립되고, 나로 인해 그 꽃 또한 존재의 의미를 획득하게 된다'고 했다. 눈의 감각으로 그 꽃을 본다는 것은 감각적 경험을 해야한다는 말이므로, 감각적 체험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불 꺼진 채와 같은 마음의 소유자'란 3단락에서 명경지수의 '정적인 상태'의 편협한 자아를 잇는 상태를 말한다. 그런 마음의 상태여야 만물과 세계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고 4문단에서 말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2단락, 4단락 '바깥 사물에 마음을 통제로 빼앗겨 자신조차 잊어버리는 고도의 몰입을 대상에 사로잡혀 끌려 다니는 풀은 '참된 자아'를 잇는 것이다'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4단락, 5단락. 편협한 자아를 잇어야 편견과 아집의 상태에서 벗어나 타자를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생겨 합일을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5단락. 장자가 꿈 속에서 나비와 물아일체가 되었다는 것은 '편협한 자아'를 잇고(명경지수와 같은 상태) 만물과의 상호의존적 관계를 이룬 것이므로 적절하다.

19. [출제의도] 다른 입장과의 비교를 통해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보기>의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구별하여 인간 우위의 관점에서 문명을 건설해야 하고, 인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 세계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이 중요하다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지문에서는 편협한 자아를 버리고, 만물과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어야 만물과 조화롭게 합일하는 '물아일체'의 사상을 말하고 있다. 그런데 ③은 자연 세계와의 합일로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세울 수 없다고 한 순자의 입장과는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나머지 선지는 순자가 장자 사상을 비판한 내용으로, ①, ② 5단락 ④ 3단락 ⑤ 4단락에 나와 있는 장자사상을 언급하며 <보기> '순자'의 비판을 언급하고 있다.

20.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④ ㉔ : 출현하다 - '없던 것이나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 드러남'이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물질적 대상이 나타난다고 할 때 쓰인다. 여기서는 드러나지 않던 존재의 의미가 나타나는 것이므로 '발현하다'가

[21~24] 사회 제재[1] - 개체화 현상과 사회적 위험 문제의 관계

21.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2문단에서 개체화의 가속화 추세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공통적 견해를 보이고 있으나, 3단락과 4단락에서는 현대의 위기와 개체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백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했고, 바우만은 개체화 현상 자체를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으므로 ③이 적절하다.

[오답풀이] ① 개체화의 다양한 양상은 2단락에 제시되나, 분

류가 아니라 다양한 양상의 예를 열거하고 있다. ② 개체화 현상에 대한 통념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지도 않았다. ④, ⑤ 지문에 이러한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2단락에서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도 현저하게 약화되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단락.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절화된 노동자들이 이제는 계급적 연대 속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계급적 동질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은 적절하다. ③ 2단락. 일인 가구가 급속도로 늘어난 것과 같은 가족의 해체 현상도 많이 나타난다에서 추론할 수 있다. ④ 3단락. 개체화 때문에 오히려 전 지구적 위험에 의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하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⑤ 4단락. 지금의 현대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하였고, 서로 간의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23. [출제의도] 중심개념 전주기-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한다.

3단락에서 울리히 벡은 현대 위기와 개체화는 별개라고 하면서 개체화되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초계급적, 초국가적으로 연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므로 ㉠ '위험사회' 안에서 인간 관계의 유연한 확장 가능성을 낙관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4단락에서는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잉여 인간으로 전락한 현대인들은 협력의 고리를 찾지 못한다고 했으므로 ㉡ '액체사회' 안에서의 인간 관계의 확장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므로 ③의 내용은 ㉡에만 해당되는 설명이다.

[오답풀이] ① 3단락. 현대의 위험은 과거와 달리 국가와 계급을 가리지 않고 파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을 언급하고 있다. ② 4단락. 현대인의 가변적이고 유동적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액체의 속성에 빗대어 유추하여 명명한 개념이다. ④, ⑤ 3문단에서 울리히 벡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고, 위험이 체계적이고도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했다. 또한 바우만도 4문단에서 예측 불가능한 전 지구적 위험 요인이 항시적으로 존재한다고 했으므로 재난의 현실화 가능성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했다는 것은 적절하다.

24. [출제의도] 어휘의 사전적 의미를 파악한다.

㉠ 방치(放置) : 건드리거나 상관하지 않고 그대로 두다 : '쫓아내거나 몰아냄'은 축출(逐出)이다.

[25~26] 과학 제재 - 암흑 물질

25.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을 파악한다.

1단락. 즈비키에 의하면 '은하들의 속력'으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의 밝기'로부터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확인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마지막 단락. 두 은하단이 충돌할 때 각각의 은하단에 퍼져 있던 고온의 가스는 탄환 은하단 중앙에 모이고, 은하단 안의 은하들과 암흑물질들은 좀처럼 충돌하지 않고 서로 엇갈려 지나간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1단락. 우주를 구성하는 전체 물질의 질량 중 약 85%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이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1단락. 암흑 물

질은 어떤 망원경으로도 관측되지 않는다 했으므로 적절하다. ④ 2단락 후반부. 은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별일수록 중심 쪽으로 당기는 물질이 공전 궤도 안쪽에 많아져서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6. [출제의도] 자료를 통해 글을 이해한다.

지문의 <그림>은 은하들의 속력으로 추정된 은하단의 질량이 은하들의 밝기로부터 추정한 질량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암흑물질이 실제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암흑물질이 없다면 중심부를 벗어났을 때 A와 같은 그래프가 나와야 하나, 암흑물질로 인해 B와 같은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문 설명에 의하면 암흑물질은 중심부 밖에 많다고 하였으므로, 암흑물질이 중심부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2단락. 루빈은 나선은하에 대한 더 정확한 관측 결과를 바탕으로 '실종된 질량'의 실재를 확증하였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③, ⑤ 2문단. 암흑물질이 거리가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중력을 보충해 주기 때문에 중심과의 거리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했고, 암흑물질이 양이 보통의 물질보다 월등히 많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27~30] 사회 제재[2]

27. -

28. -

29. -

30. A형 27~30번과 동일

- 문학 -

[31~33] (고전시가) (가) 작자 미상, 「어이 못 오던나~」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면서 임에 대한 원망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임이 오지 않는 이유가 임과 자신 사이에 있는 다수의 장애물 때문임을 연쇄법과 열거법을 통해 해학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전시가) (나) 작자 미상, 「청천에 떠서~」

화자와 기러기와 대화 형식을 통해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임을 보러 날아가고 있는 기러기와 달리 화자는 임의 소식을 알 수도, 임을 보러 갈 수도 없는 처지이다. 이와 같이 이 시조는 화자와 기러기의 처지를 대비시켜 임을 만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강조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고전시가) (다) 작자 미상, 「정선 아리랑」중에서

「정선 아리랑」, 또는 「아리랑」라고도 부르는 강원도의 민요이다. 정선의 여러 지명들, 강과 산줄기를 낀 자연환경, 그리고 그 안에서의 사랑과 이별 등 생활 속의 토속적인 정취가 잘 나타나 있다.

31. [출제의도] 화자의 정서를 파악한다.

③ (나)에서는 '기러기'를 의인화하여 화자의 처지를 임에게 알리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안타까움

을 드러내고 있다. ②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는 것으로 자책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④ 화자가 기러기와 대화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추억을 회상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다. ⑤(가)의 '성(城)'은 화자가 설정한 가상의 공간이지 실제로 임이 거주하는 공간은 아니다. (나)의 '한양성'은 임이 거주하는 공간이지만 공간의 특징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32. [출제의도] 시적 상황을 파악한다.

④ '해 달'을 통해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나타내고는 있으나 이는 오지 않는 임과의 대비를 통해 대상이 부재하는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오답풀이] ① '그대는 늙지 마세요'의 청유형 문장으로 임이 '고사리'처럼 늙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애정을 나타내고 있다. ② '서산'의 '해'가 지고 싶어 지는 것이 아니듯 '임'도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고 표현하여 떠나는 임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시집살이가 어떻던가'라는 화자의 물음에 다른 화자가 머뭇결을 '비사리춤'에 비유해 대답하며 시집살이의 고단한 삶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상의 흐름으로 볼 때 화자가 사랑하는 임은 오지 않는 상황이므로 [E]는 화자가 자신의 사랑에 견주어 임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3. 시의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② (나)는 시간의 순차적 흐름이 아니라 화자와 기러기의 대화 형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연쇄적 표현과 과장적 표현으로 해학성을 드러내고 있다. ③ (가)와 (나)는 주로 서민계층에 의해 창작된 사실시조와 민요로 생활에 밀접한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⑤ (나)에서는 '기러기'를, (다)에서는 '뱃사공'을 청자로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형식을 활용하고 있다.

[34~36] (현대소설) 최일남, 「흐르는 북」

이 소설은 2008학년도 수능에 이미 출제된 소설이다. EBS 작품 해설을 살펴보자.

이 작품은 1980년대 서울의 한 중산층 가족의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합을 보여 주고 있다. 북은 민 노인의 삶의 궤적을 보여 주며, 실리적인 가치보다는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예술 정신과 전통 세계의 가치관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유년 시절을 겪은 민대찬은 아버지의 무책임한 태도를 비판하며, 실리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명예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 성규에게도 자신의 삶의 태도를 강요한다. 그러나 성규는 새로운 세대의 입장에서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아버지에게도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이해해 줄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성규의 태도는 전통 세대와 기성세대의 갈등이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 화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34.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민 노인의 머느리가 민 노인을 대하는 태도는 2 문단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더구나 시아버지의 그런 생애와 전적으

로 무관한 며느리가, 때어 버릴 수도 없는 인연으로 맺어지고 있을지언정, 자기를 울곧게만은 대할 수 없는 형편임을~"라는 문장을 통해 민 노인을 대하는 며느리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민 노인과 아들 내외 사이의 근본적 갈등 원인이 드러난 것은 아니다. 며느리는 과거의 시아버지의 삶과는 전적으로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㉔은 옳은 설명이 아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의 위치에서 서술되고 있지만, ㉑ 부분에서는 민 노인의 입장에서 서술되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 인물(민 노인)의 시선으로 다른 인물(며느리)의 심리를 해석하고 있다. ② 민 노인(민익태)의 과거의 삶을 요약하여 진술하고 있다. '공부를 중도에서 그만두고, 북을 치며 떠돌이 생활을 하고, 가정을 버리고, 아편에 빠졌던' 민 노인의 삶이 ㉒에서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③ 민 노인의 아내가 살아있었던 과거에는 아내가 민 노인의 방어막이 되어 주었지만, 아내가 죽고 없는 현재는 아들 내외의 구박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이 서술되어 있다. 그러므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해서 민 노인의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④ 이 대화는 EBS 교재에 수록된 부분이다. 교재 연계가 두드러지는 문제로 볼 수 있다. 아버지(민대찬)와 아들(민성규)가 대화하는 부분으로 민 노인을 가운데 두고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민대찬과 성규가 갈등하는 이유는 민 노인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민대찬은 민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성규는 민 노인을 이해하는 편이며 아버지(민대찬)와 할아버지(민익태) 사이의 불화를 해소해보려는 입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특하구나."라는 아버지(민대찬)의 발화는 민 노인을 이해하려는 아들(성규)의 태도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의미로 볼 수 있으므로 '반어적'이라 할 수 있다. "반어적 표현"은 수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문학 개념이므로 반드시 정리해 둘 것 !!

35. [출제의도] 구절의 문맥적 의미를 판단한다.

민 노인의 아들 민대찬은 아버지와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 민 노인에 대한 비판은 민대찬을 현실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간형으로 만들었다. 곧 실리적 가치와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는 인간이 바로 민대찬인 것이다. 성규가 말한 '생활인의 감각'이란 이런 의미에서 현실에 집착하는 민대찬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세련된 입신'이란 아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현실을 말한다. 그러므로 평생 '북을 치며 가족을 버리고 예술적 삶'을 추구했던 민 노인이 아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발체 지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② '날천한 생활'의 의미는 '자신에게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아버지(민 노인)를 자신의 삶에서 격리시키는 생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만큼 민대찬의 삶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날천하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없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이다. 그러므로 민 노인을 대하는 민대찬의 생각이 아닌 성규를 바라보는 민대찬의 생각은 아닌 것이다. ③ '역사의 의미'는 성규의 입장으로 보자면 '민 노인'과 '민대찬' 사이의 갈등이 '민 노인'과 '성규' 사이에서는 얼마든지 쾌적하게 만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성규'가 '민 노인'과의 관계를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잘못된 것이다. ⑤ '비극의 차원'은 '민 노인'과 '아버지'가 감정적으로 갈라선 것에 대한 '아버지(민대찬)'의 입장인 것이지만, 자신(성규)의 입장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자신은 할아버지의 삶을 예술적 차원에서 용서

할 수 있다고 했다.

36. [출제의도]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성규'는 '민 노인'의 삶을 이해하고 있으며, '민 노인'과 '아버지(민대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성규'가 '민 노인'과 친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민 노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지만, 자신의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보기>를 통해 볼 때 '소통'은 경험이나 가치관의 공유를 전제로 한다. 소통이 어렵다는 것은 경험이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볼 때 '민 노인'과 '성규의 아버지' 사이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예술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② '성규'가 '아버지(민대찬)'와 소통이 불가능한 지점은 '민 노인'을 이해하는가 못 하는가이다. 그러므로 '민 노인'을 대하는 두 사람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인간은 소통을 통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민 노인'이 아들 민대찬으로부터 소통을 거부당하는 것은 아버지로서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⑤ 1문단 마지막 문장으로 보면 '아들 내외는 요컨대 아버지가 그냥 보통 노인네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보자면 민 노인의 아들 '민대찬'은 아버지 민 노인의 행동을 못마땅해 한다. 민 노인이 북을 치는 모습을 보여줄수록 자신의 체면이 서지 않는다는 것이다. 1문단의 문장을 다시 보자. '그 녀석들(민대찬의 고향 친구들)은 아버지의 북소리를 꼭 듣고 싶어서 청한 것이 아니라, 그 북을 통해 자기의 면목이나 위치를 빈정대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결국 민대찬은 민 노인이 북을 치는 모습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존재 가치가 방해받는다고 생각한다.

[37~40] (고전소설) 작자 미상, '전우치전'

도술에 능한 '전우치'라는 인물의 생애를 소재로 하여 쓴 소설로 대단히 비현실적이다. 그러나 당시(조선후기)의 부패한 정치와 당쟁을 풍자하고 그것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부각시키는 등 사회 비판적인 색채가 강한 작품이다.

이 소설의 전체 내용은 주인공 전우치가 의협심을 발휘하여 부패한 정치를 시정하고, 백성의 곤궁한 생활을 구제코자 자기의 도술을 사용하다가 나중에 서화담을 따라 영주산에 도를 닦고자 들어가는 것으로 끝난다.

37. [출제의도] 작품의 세부 내용을 확인한다.

임금이 전우치에게 어주(임금이 신하에게 내리는 술)와 인검(임금이 병마를 통솔하는 장수에게 주던 검으로, 군령을 어기는 자는 임금에게 보고하지 않고 죽일 수 있었음)을 내린 이유는 함경도 가달산의 도적을 소탕하라고 내린 것이지만, 그동안의 수고를 치하하기 위함이 아니다. 정답 ②

[오답풀이] ① 1문단을 보면 '본읍 원이 관군을 발하여 잡으려 하되 능히 잡지 못하고'라고 서술되어 있다. 그래서 우치가 임금 앞에 나서서 자신이 도적을 소탕하겠다고 말한다. ③ 본문 중에서 <중략> 윗부분을 보면 가달산의 괴수 엄준이 '황금 교자에 높이 앉고 좌우에 제장을 차례로 앉히고 크게 잔치하며 그 뒤에 대청이 있으니 미녀 수백 인이 열좌하여 상을 받'고 있다. 이를 통해 엄준이 장수들과 미녀를 데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④ 14쪽 맨 윗부분 지문을 보면 '힘껏 치나 능히 또 매를 들지 못하고 팔이 아파

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때 우치는 임금을 향해 '신이 전일 죄상은 죽어 마땅하나, 금일 일은 만만 애매하오니 용서하옵소서'라며 임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다. ⑤ 13쪽 맨 아랫부분 임금의 대화를 보면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作亂)함도 용서치 못할 바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 변명이나 어찌 면하리오'라며 전우치를 죽일 뜻을 비치고 있다. 이후 전우치는 속으로 '주상이 필경 용서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 14쪽 5번째 줄을 참고하라.

38.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한다.

전우치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 생각하고 임금에게 자신의 재주를 세상에 전한 후에 죽겠다고 부탁한다. 이 말을 들은 임금은 바로 죽이라 하지 않고 '시험'해 볼 뜻을 비친다. 그래서 우치는 '그림 그리기'를 임금에게 청하고, 임금은 전우치의 부탁을 들어주게 된다. 그러므로 ㉠과 ㉡에서 임금의 생각은 전우치의 말을 듣고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생각하므로 전우치의 의도대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에서 임금이 근심을 한 이유는 함경도 가달산에 큰 도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은 우치가 도적을 토벌하겠다는 말을 들은 임금이 크게 기뻐했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의 원인이 된 사건은 '가달산 도적'이고, ㉡을 유발한 것은 '우치가 도적을 토벌하겠다고 한 말'이므로 ㉡ 때문에 ㉠이 야기된 것이 아니라, ㉠ 때문에 ㉡이 일어난 것이다. ② ㉡은 사건(가달산 도적의 발흥)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 맞다. 그러나 ㉡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사라진 것 때문이 아니라 우치의 역모가 발각되어 임금이 크게 화가 난 것이다. ③ ㉡으로 인해 임금과 우치 사이에 갈등이 형성된 것은 맞지만, 제3가 개입하여 ㉡을 촉발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임금의 대화를 보면 '네 전일 나라를 속이고 도처마다 작난함도 용서치 못할 바이거늘, 이제 또 역모를 꾸몄으니'라고 하여, 전우치에게 두 번이나 속아 임금이 화가 났다고 볼 수 있다. ④ ㉡에서 화가 난 임금이 ㉡에서 우치의 말을 들은 이유는 우치의 재주가 뛰어난 것을 임금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지, 갈등 원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은 아니다.

39. [출제의도] <보기>를 통해 작품을 이해한다.

㉡와 ㉢의 사건 모두 주인공(전우치)이 조력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므로 ④의 '초월적 존재와 교감하여'라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영웅 소설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사건이 중심을 이루는 대표적인 소설이 '홍길동전'이다. '전우치전'은 '홍길동전'의 아류작이라 평가받고 있다. 참고하면 좋을 것이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와 ㉢의 사건 모두 전우치가 주도하고 있다. ② ㉡는 술개로 변신한 전우치의 도술이 보이므로 '변신 도술'을 사용하고 있고, ㉢는 '그림을 그리고 그 속으로 들어가는 도술'을 사용하고 있다. ③ ㉡와 ㉢ 모두 도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도술을 사용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⑤ ㉡와 ㉢ 모두 도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비현실적인 사건이다. 이는 독자에게 신비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환타지 소설 속의 주인공이나 비현실적 사건들은 독자들에게 신비하거나 환상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독자들을 유혹하는 강력한 무기이다. 수능에서도 '전기적 요소'들이 자주 출제되므로 유의할 것 !!

40. [출제의도] 상황에 맞는 한자성어를 이해한다.

㉠의 상황은 인물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이 나간 상태를 서술한 부분이므로, 혼비백산(魂飛魄散)이 적절하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기호지세(騎虎之勢) : 호랑이를 타고 달리는 기세(氣勢)라는 뜻으로, 범을 타고 달리는 사람이 도중(途中)에서 내릴 수 없는 것처럼 도중(途中)에서 그만두거나 물러설 수 없는 형세(形勢)를 이르는 말 ② 방약무인(傍若無人) :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으로, 주위(周圍)에 있는 다른 사람을 전혀 의식(意識)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行動)하는 것을 이르는 말 ③ 우후죽순(雨後竹筍) : 비가 온 뒤에 솟는 죽순(竹筍)이라는 뜻으로, 어떤 일이 일시(一時)에 많이 일어남을 이르는 말 ④ 풍수지탄(風樹之嘆) :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를 다하려고 생각할 때에는 이미 돌아가셔서 그 뜻을 이룰 수 없음을 이르는 말

[41~43] (현대시) A형과 동일

[44~45] (현대희곡) 이강백, '결혼'